

# 공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 “교육 평가방법 전환 필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선진화 위한 공동선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서강대 총장)는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 11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 총장 일동’ 이름으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대학 총장들은 “성적위주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대입전형 하에서는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개발시켜주는 초·중등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학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잠재능력이 풍부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의 사교육의 도움이 없이는 초·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으로 육성·개발시켜줄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은 대학 총장 및 입학처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장단의 검토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전문과 8개 학의사상, 그리고 정부·고등학교·사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학 총장을 대표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손병두 회장, 서기석 부회장, 이배용 부회장, 이희연 부회장)이 발표했다.

이번 총장들은 성적위주 입시관행 개선을 위해 고교-대학간 협력 체제 강화, 고교 교육활동의 사실

적 기록, 수준 높은 대학교육 제공, 투명한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을 거론하며 이런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대학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대학교육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8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고등학교와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호 기자 kkh@eduyonhap.com

## 교과부, ‘미래인재 포럼’ 개최

“창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평가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평가 방법의 변화”라는 주제로 ‘제22회 미래인재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인재 포럼’은 산·학·관의 전문가들이 미래 인재개발 및 R&D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경

제인연합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정례 포럼으로, 2005년부터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차원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평가 방법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교육의 전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발전하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바로 교수-학습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평가방법이 체계·지속적으로 교육현장(특히 교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정책·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교육평가관은 교육평가의 방향은 획일적, 기계적, 집단적 평가에서 개별적, 종합적, 다양화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평가관은 표준화점수(상대평가: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 판단하는 평가), 준거점수(절대평가: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영역의 성취도를 준거에 비추어 평가)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성장점수평가,

학생의 능력에 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평가하는 능력점수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다형(객관식) 검사에서 습득한 지식, 기능이나 기술을 실제생활이나 인위적 평가상황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서술, 관찰,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필검사보다는 검사결과에 즉각적인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하고 동영상, 사진,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항이 가능하며 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한 컴퓨터화 검사(Computerized Test)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평가 시기는 일회적이기 보다는 개인의 성장변화를 계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평가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제발표 결론에서 수행평가와 컴퓨터화 검사를 통해 개인의 성장곡선 등을 기록·도출하고 관찰, 면접 등을 통한 인·적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호 기자 kkh@eduyonhap.com

**1면에 이어서...**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교과 성적 일정기준 이내의 학생 중 추천하도록 하되, 일정기준은 50%~100%범위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교육청에서 중학교 교과성적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하여 추천하도록 하되, 교과성적 기준 등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학교 수는 시·도별 일반계 입학정원 및 일반계 사립학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학정원의 20%이상 선발하도록 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9.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감되는 재정결합보조금(교당 약 25억원)은 일반 공립고 교육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사전협의 및 지정을 2009년 7월 완료하고, 2009년 11~12월 신입생을 선발, 2010년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몸과 머리가 맑게** 부천 옥산초등학교(학교장 김인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3번째 예절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학기 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예교사 11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이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강사 김중언)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4월과 5월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석 바른기 및 배려편 등 전통 생활예절을 두 차례 지도했으며, 특히 6월에는 부천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사(김광순)를 초빙하여 이들에 걸쳐 예절 인성교육과 다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 내년 수능 11월 11일

### 시험영역·성적표기 등 올해와 동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내년 11월 11일에 실시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되고, 성적은 12월 8일 발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 수능시험은 시험영역과 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출제형식, 성적표기 등은 올해 수능시험과 큰 변화 없이 출제된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며, 과목은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다.

성적은 내년 12월8일에 발송되

며, 성적표에는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의 9등급으로 표기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3월께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7월에는 시험시행공고와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 광주 교육정보화 실력 전국에 과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최경)의 정술, 이명진(3학년)양이 오는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MOS)’ 세계대회 고등부 워드부문(MOS 2003), 엑셀부문(MCAS)에서 고등부 한국대표 선발대회에서 3명 중 2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해 광주지역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정보화 실력을 전국에 과시했다.

광주여성상은 6일 지난 5월 24일 송산대학교와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선발전에 MOS 2003워드부문(정술)과 MCAS 엑셀부문(이명진)에 출전해 정술, 이명진(1등)과 장해영(워드부문 2등 - 2학년), 임영미(MCAS워드부문 장려상, 3학년) 등 다수 학생들이 입상했다.

MOS 세계경진대회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170여 개국 국가대표들이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사용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지원하여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으며 오늘의 이 성과는 본선에 진출하게 된 580여 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따낸 것이어서 이들의 수상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u-러닝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정보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광주여성상은 그 동안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작년에 이어 2년동안 한국대표를 3명이나 배출시킴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2009 MOS 세계경진대회에 ‘워드’와 ‘엑셀’ 부문에 참가하는 정술, 이명진 한국대표에게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참가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

**발행인/편집인 한승근**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 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FAX 032-433-5633    호남본부 062-653-1996  
 포천지사 031-542-8363

---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200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계절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순수학위취득자 5학기 조기졸업제 시행

-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과정(교육학 석사)
- 2. 원서접수**
  - 가. 특별전형 : 2009년 5월 25일(월) ~ 2009년 5월 28일(목) 09:00 ~ 17:30
  - 나. 일반전형 : 2009년 6월 22일(월) ~ 2009년 6월 26일(금) 09:00 ~ 17:30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 4. 전형일시 및 장소**
  - 가. 특별전형 : 2009년 6월 13일(토)
  - 나. 일반전형 : 2009년 7월 11일(토)
- 5. 특전**
  - ◆ 현직교원, 장학사(관), 연구사(관) : 등록금의 40% 특별장학금 지급
  - ◆ 교원자격증(2급정교사이상) 소지자 : 등록금의 20%를 특별장학금 지급
  - ◆ 성적우수자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지급
  - ◆ 임용고시에 합격 한 경우 최고 100%까지 1학기동안 장학금 지급.(1차 합격자부터 지급)
  - ◆ 교육실습 우수자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 ◆ 임용고시 대비 무료 특강 및 인터넷강의 연중 실시
  - ◆ 출석수업 기간 본교 기숙사 이용 가능

문의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팀 (062) 230-6421, 6422